



## “올 여름은 남원에서 만끽해볼까” 지리산 백미 담긴 계곡과 생태·힐링 공간 즐비

올여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해외여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더위 속 조용히 나만의 휴가를 즐기고 싶다면 남원을 찾는 게 어떨까. 남원에는 지리산의 백미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이 즐비해 여름철 여행지로 제격이다.

뱀사골 계곡은 반야봉(1천732m)과 명선봉 사이의 울창한 수림지대를 맑은 계류가 기암괴석을 감돌아 흐른다. 용이 떨어졌다는 탁룡소를 지나 금포교를 건너면 병소, 뱀소, 병풍소 등 계곡의 비경이 줄을 선다.

수려한 산세와 깎아지른 듯한 기암절벽이 일품인 구룡계곡은 또 어떠한가. 지리산 국립공원 북부사무소 구룡분소에서 구룡폭포까지 4km에 이르는 이 계곡은 매년 음력 4월 초파일이면 아홉 마리용이 하늘에서 내려와 아홉 군데 폭포에 한 마리씩 자리 잡고 노닐다가 승천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구룡계곡은 크고 작은 바위와 맑은 물, 이름 모를 산새와 야생화, 철없이 바쁜 다람쥐 등이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한다.

남원시 산내면에는 삼한시대 마한(馬韓)의 별궁이 있었다고 한다. 마한의 6대 왕이었던 효왕이 진한의 침략을 받자 지리산 자락으로 피신했고, 이곳에 궁을 짓고 70여년간 권토중래하며 때를 기다렸다고 한다. 개선동, 황나들이 등 주위의 지명들이 이러한 전설을 입증한다.

산내면에서 14km 지점인 지리산의 반야봉 아래에는 달궁계곡이 있다. 임금이 머문 이곳은 지리산 고지대 특유의 시원함은 물론, 운치까지 더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또 달궁 오토캠핑장도 시원한 산촌의 낭만과 정취를 선사한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도 빼놓을 수 없다. 교육장은 전시관과 체험·휴양시설로 꾸며져 있다. 전시관은 5D 씨클 영상관을 비롯한 전시시설과 지리산 자생곤충을 사육하는 곤충온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체험·휴양시설은 전국 최초의 트리하우스로 해발 600m에 위치,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특히 트리하우스는 지상 2m 나무 위에 편백으로 만들어져 숙면에 효과적이다. 피톤치드 향기가 가득해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최적의 명소로 인기를 더하고 있다.

남원 운봉에 있는 행정마을 서어나무숲에서는 자연이 간직한 아름다운 진수를 느낄 수 있다. 2000년도 제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아름다운 마을 숲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지리산 둘레길 제1구간에 있는 이 숲은 약 1천600㎡(500평)의 면적에 평균 수령 200년 이상의 서어나무 100여 그루가 가족처럼 웅기종기 모여 있어 남원만의 또 다른 힐링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올여름 특별한 여행지를 찾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남원을 선택해 보자. ▼



**공모주제** 하늘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남원을 찾아보자  
**접수기간** 2020. 10. 5.(월) ~ 2020. 10. 16.(금) 18:00까지  
**응모자격** 모든 국민(개인이나 2인이내의 팀)  
**접수방법** 이메일 제출 (hijins@korea.kr)  
**작품기준** 2020년 남원시를 촬영한 드론 촬영 영상/사진  
**출품수량** 1인당 각각 1작품 이내 미발표작  
 드론영상 30초이상 1분이내 편집 MP4 영상 파일  
 1,920 x 1,080 30p(Full HD)  
 드론사진 긴폭의 사이즈가 3,000픽셀 이상의 JPG 파일  
**결과발표** 2020. 10. 30.(금) 예정 / 시청 홈페이지 게시  
**시상내역**

구분	작품 수	시상내역
영 상	대상	1 300만원
	최우수상	1 150만원
	우수상	1 100만원
	계절상	3 각 100만원
사 진	입선	5 각 30만원
	대상	1 100만원
	최우수상	2 각 80만원
	우수상	2 각 50만원
	입선	7 각 20만원

※계절상(겨울, 봄, 여름) 별도 시상  
**문의 ☎ 063-620-6044**  
 세부사항은 홈페이지(www.namwon.go.kr) 공모요강 참조

